



산업분석 | 정유화학/조선

Analyst  
양형모

02 3779 8843

yhm@ebestsec.co.kr

**Overweight**

# 조선

2H19~1H20까지 수주 증가 사이클 진입 가능성 高

## 8월 19일 조선주 및 기자재 업체 주가 큰 폭 상승

- 조선: 한국조선 +7.63%, 삼성중공업 +7.08%, 대우조선 +10.58%, 미포 +6.74%
- 기자재: 세진중 +6.42%, 태광 +3.46%, 삼강엠앤티 +4.86%, HSD 엔진 +3.63%
- LNG: 한국카본 +10.17%, 동성화인텍 +6.5%

- 주가 상승 배경은 (1) 삼성중 LNG 추진 아프리카막스 탱커 10척 수주 공시. 총 규모는 7,513억원, 척당 선가는 약 \$62m. 장금상선이 Shell사와 체결한 용선 계약을 토대로 발주한 물량. 옵션분 5척도 보유. 발주 대기 중인 선주들 자극 가능한 수준

- (2) 또한 카타르의 Qatargas는 LNG선 80척, 150억달러 이상 발주하기 위해 LNG 선주들과 첫 접촉을 가졌다는 내용의 기사. 80척 중 60척은 자국 필드 Expansion용, 조선소에 건조 슬롯을 예약할 계획. 내년 6월 최종 낙찰자를 통보. 국내 조선업체의 Capa를 감안하면 구체화된 슬롯 예약 내용 곧 가시화될 전망

- (3) 그리고 Evergreen은 23,000TEU급 초대형 컨테이션 11척 발주할 것이라고 공시. 일본 쇼에이 키센이 용선 제공 선주사 중 Front Runner로 이마바리조선 발주 가능 높음. 한편 Evergreen 외 독일 Hapag-Lloyd 23,000TEU 6척(10억달러) 발주할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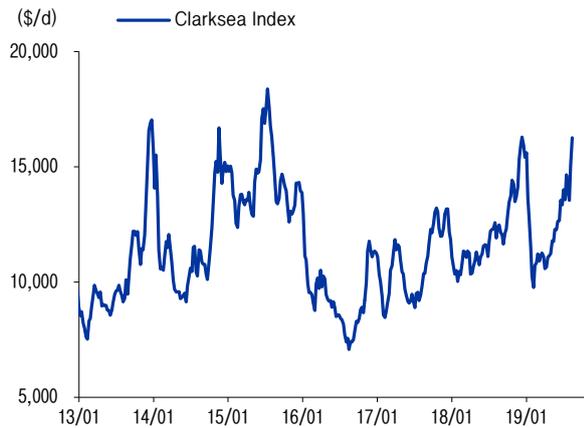
## 운임 상승 중(8월 16일 클락슨 데이터 업데이트. 그림 참조)

- Clarksea Index 는 \$16,265 를 기록하며 전고점 2018년 12월 14일 \$16,289 육박
- BDI는 2,000포인트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유지. Capesize, Panamax급 운임 상승
- VLCC 운임도 2018년 12월 이래 최고치 수준
- 최근 컨테이너선 용선료 상승 추세로 전환. 초대형 컨테이너선부터 Feeder급 까지 모든 크기의 컨테이너선 용선료 상승

## 해양플랜트 역시 발주 대기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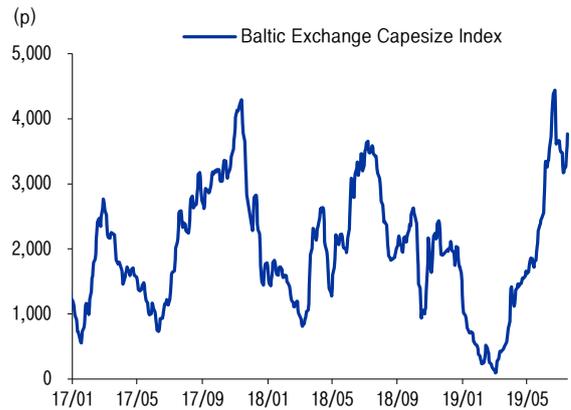
- 미국 Chevron Anchor FPU - 하반기 발주 예상
- 호주 ConocoPhillips 의 Caldita-Barossa FPSO 10억달러 - 하반기 발주 예상
- 나이지리아 RDS 의 Bonga FPSO 12억달러 - 입찰 진행 중
- 북해 Equinor 의 Rosebank FPSO 15~20억달러 - 입찰 재개 기다리는 중
- 베트남 Block B platform 프로젝트 10억달러 내외

그림1 운임 상승 추세로 전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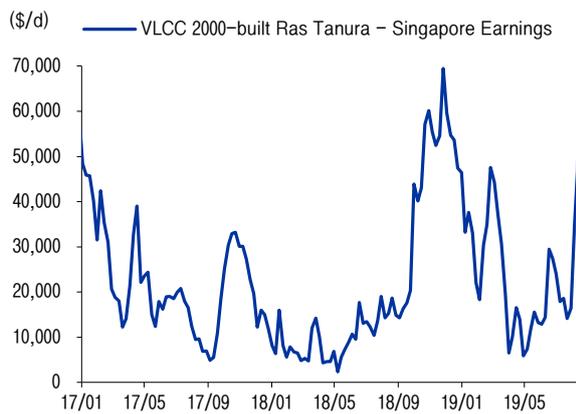
자료: Clarkson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벌크선 Capesiz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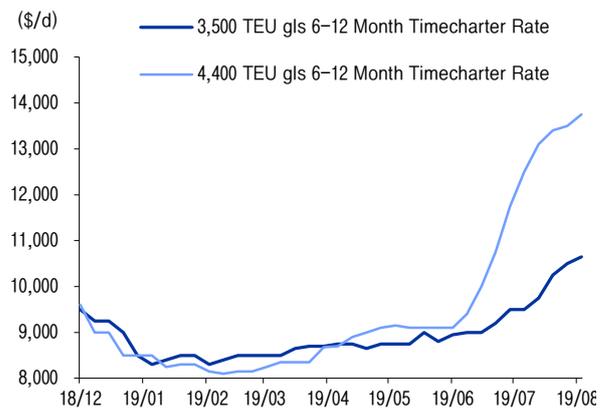
자료: Clarkson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탱커 VLCC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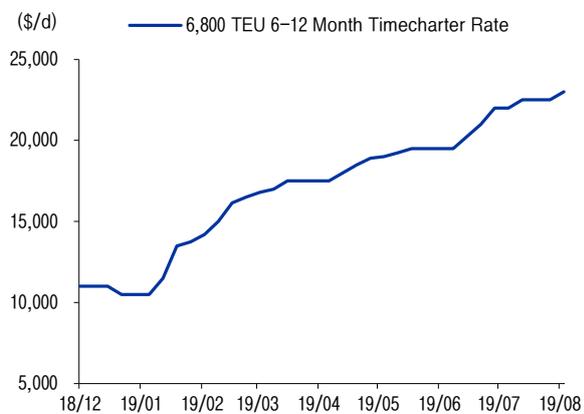
자료: Clarkson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4,400TEU 컨테이너선 운선료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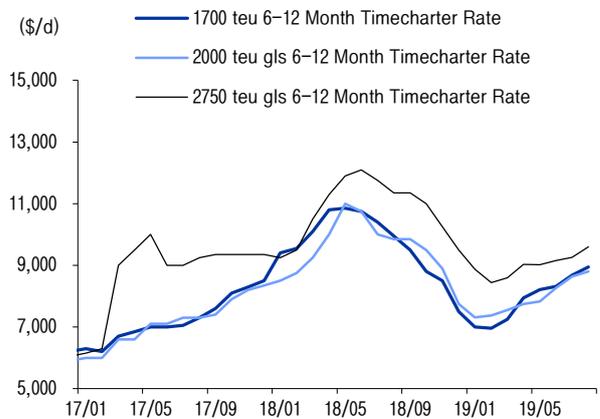
자료: Clarkson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5 6,800TEU 컨테이너선 운선료 상승



자료: Clarkson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Feeder 컨테이너선 운선료 상승



자료: Clarkson,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**Compliance Notice**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양형모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\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\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**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**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개월)	투자의견 비율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Buy (매수)	+15% 이상 기대	93.9%	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준 ±20%에서 ±15%로 변경
		Hold (보유)	-15% ~ +15% 기대	6.1%	
		Sell (매도)	-15% 이하 기대		
		합계		100.0%	투자의견 비율은 2018. 7. 1 ~ 2019. 6.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(최근 1년간 누적 기준, 분기별 갱신)